

일본 페인트 시장 “끝없이 추락”

2002년 생산 180만톤으로 18년전 후퇴 ... 중국·동남아 생산확대

일본 도료 시장에서 단계적인 수요축소 현상이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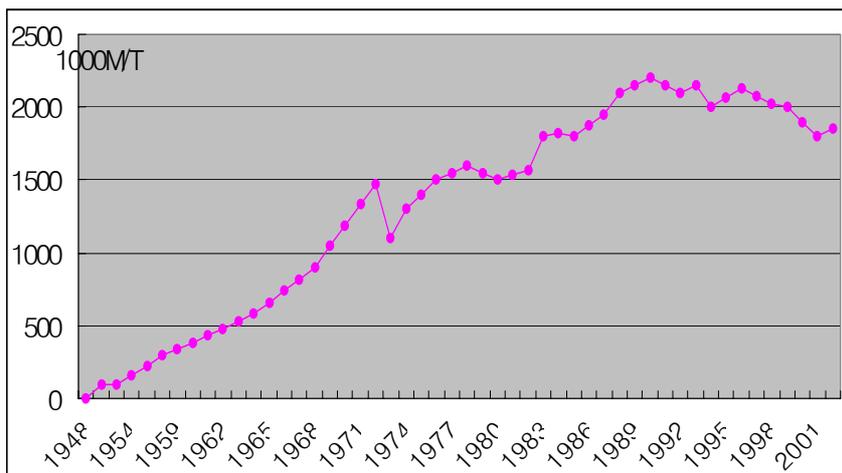
일본의 도료 생산량은 1990년 약 230만톤을 최고로 슈링크 경향을 보이고 있고, 지금은 말 그대로 끝이 보이지 않는 추락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2002년 일본의 도료 생산량은 180만톤 정도로 18년전인 1984년 생산량 184만톤 수준에 불과해 약 20년 사이에 증가분이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1990년을 기점으로 아시아에서의 일본계 도료 메이커의 해외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외생산의 증가는 명확한 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공동화를 목표로 서로 손을 잡은 개수(改修)와 리뉴얼 외에 시장분기가 다시 한번 요구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도료 생산량은 2002년 기준 180만톤으로 전년대비 0.7% 증가해 미세한 플러스 신장으로 전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의 도료 생산량 변화



그러나 194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는 오일쇼크에 의한 일시적인 추락경향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높은 증가율을 유지했다. 1990년대에는 생산량이 230만톤까지 달해 250만톤 수준까지도 전망됐을 정도이다.

이후 버블경제 붕괴 영향으로 일본계 도료 메이커의 본격적인 해외진출,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생산 러시가 부상했고, 일본의 도료 생산량은 일진일퇴를 반복하는 가운데 확실한 시장 슈링크를 향해가고 있다. 특히, 현재의 생산량은 18년전의 생산량 184만톤 수준으로 떨어져 약 50만톤 정도가 상실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1990년 약 12만톤에 불과했던 일본계 메이커의 동남아시아 생산량은 1996년 2배 이상인 25만톤으로 확대됐고, 중국 생산량은 더더욱 급격한 상승세를 타 1990년 2만-3만톤에 불과했으나 1994년부터 3-4배 이상 증가를 거듭하고 있다. 현재는 동남아시아의 생산을 제외하면 25만톤 이상으로 톱 수준이다. 일본계 도료 메이커의 해외생산 가운데 동남아시아, 중국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 총 생산량은 현재 70만톤 수준으로 1990년과 비교하면 약 3.7배에 달하고 있으며, 중국 및 동남아시아의 신장률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7/08>